

의정부소방서, 주변 청소하고 화재도 예방하는 '안전환경의 날 캠페인' 실시

소방신문 | 승인 2024.03.28 17:18



의정부소방서는 3월 28일 의정부 동오마을 인근 상가 주변을 대상으로 주변 청소하고 화재도 예방하는 '안전환경의 날 캠페인'을 실시했다.

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 의정부시 전체 1,084건 중 쓰레기 화재는 총 127건으로 전체화재의 11.7%를 차지하였고,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66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중 ▲담배꽂초(83%) ▲쓰레기소각 (7%) 순으로 발생하였다.

이에 생활주변 정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민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·상가 밀집 지역 및 전통시장 등 쓰레기 화재 취약장소를 찾아 '안전환경의 날 캠페인'을 매월 1회 연중 추진할 방침이다.

이날 의정부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서 관계자들 20여명이 모여 주변 환경 정리 및 주변 상가 부주의 화재 예방 당부 등 안전수칙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.

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“담배꽂초 등 부주의로 인한 쓰레기 화재가 적지 않다”며 “매달 실시하는 안전 환경의 날 캠페인에 의정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”고 전했다.



소방신문 sobangnews@empas.com

저작권자 ©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